



## 서민과 중산층의 창업 지원 및 경제활동 활성화 대책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 나경수  
02) 579-3291 ksrha@esak.or.kr

### 1. 추진배경

첫째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소득증대를 위한 그들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의 창업 및 경영활동의 지원을 통해 소득증대는 물론 기업생산과 고용 등 전반적인 국민경제의 활성화도 가능한 것이다.

둘째로, 특히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7%이상을 차지하고 종사자의 62.7%를 차지하는 생계형 산업으로서 서민과 중산층의 토대가 되고 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전종업원 5인미만의, 그리고 소기업이란 10인미만의 영세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합친 사업체가 우리나라에는 279만개나 되고 여기에 종사하는자가 무려 730만명이나 된다.

원천적으로 신용이나 담보력이 턱없이 부족한 영세 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그들의 창업분위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취약계층인 여성,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도 추진중에 있다. 그리하

여 창업기업에 이어 기존 영세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안정, 구조개선자금과 신용보험지원 등의 자금조달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서민과 중산층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인 중소유통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 2. 추진실적

지금까지의 창업자금의 지원 등을 통한 창업확산 분위기가 어느정도 조성되었다.

1999년부터 작년까지 중소벤처 창업자금을 5,800개업체에 대하여 1조 5천억원을 지원하였고, 역시 동기간에 소상공인 경영자금으로 5만개업체 대상으로 1조 2천 6백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동안의 창업배율을 보면, 창업업체 대 부도업체가 1998년에 2.6, 1999년에 12.4, 2000년에 14.8, 2001년에 16.9 그리고 작년에는 20.0였다. 2002년에 293개의 창업보육센터와 60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여성기업 전용 자금제도(funds)를 운영하였다.

전반적인 창업여건은 상당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으

나, 아직도 창업자금규모를 세밀히 검토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경우 매년 4~5월 경이 되면 조기에 소진되고 있으며, 장애인 등의 아직도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창업에 대한 종합 지원책이 아직도 상당부분 부족한 편이다.

그리고 한편 재래시장 등 중소기업업을 위한 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2002년 1월에 중소기업체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에 427억원을 지원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과 재건축 및 환경개선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프랜차이즈(franchise) 창업 실태와 전국 유통업 실태조사를 2002년 12월에 실시하였다.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국적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지방 중소기업의 8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상점가 등의 경우에는 정보화와 물류인프라 등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정부지원 시책이 전연 없어 아직도 방치된 채 커다란 문제거리로 남아 있다.

### 3. 향후 추진 계획

중장기 추진방향으로,

첫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창업활동 및 경영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와 관련하여 「창업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창업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한다.

즉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영세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 혹은 최소화하기 위한 어음보험제도를 개선한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창업활성화를 지원한다. 여성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금과 경영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과 실업자 및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창업지원책을 점차로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를 확대해 주고 그들의 경영정보화를 촉진한다.

둘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업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유통과 오락 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그 고유의 상권을 조성한다.

2007년까지 재래시장의 시설 개선과 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며, 상점가와 상업단지 등 집합상가와 개별점포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다.

더불어 정보화와 물류공동화(物流共同化) 그리고 도매상의 지원을 통한 지방유통시스템의 효율화를 제고한다. 또한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프랜차이즈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확산시키기 위해 향토식품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보급을 적극 추진하여 2007년까지 40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2003년도의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는, 첫째로, 창업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즉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확충한다. 2003년 3월부터 2008년까지의 「창업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기



## 시 책 단

존의 자금과 보육부문의 창업지원시책을 재검토·분석하며 그 효과성을 재점검하여 실효성있는 간접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중소·벤처창업을 위한 자금을 금년도에는 2,700억원을 집행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50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창업지원을 원활화할 계획이다. 또 금년하반기에는 2개 창업대학원의 시범 운영을 통한 창업전문가를 양성하고, 금년도에는 160억원을 투입하여 신기술 보유자의 창업지원을 위한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로, 소상공인을 위한 영세기업자금의 안전망을 구축한다.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금년도의 지원 자금 2,500억원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1,000억원의 재원을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추가로 조성한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자금의 3,500억원을 확대하여, 금년도의 2,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중소기업진흥기금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년도의 구조개선자금 1조원에 역시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2,5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신용보증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추경안으로 2,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이며, 지역신보를 통한 소액 신용보증공급을 확대해서 작년도의 12,500억원에서 금년도에는 15,000억원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영세기업의 연쇄도산을 최소화하거나 그 방지를 위한 어음보험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보험취급대상을 어음에서 매출채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로, 여성과 장애인 등 지금껏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금년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100억원의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을 신설하며 또 금년도에 20억원의 저소득의 여성가장을 지원할 생계형 창업자금을 운영한다.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사업계획에 따라 여성기술인 창업자금의 대출대상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 및 창업교육을 수료한 여성,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여성, 문화산업이나 정보통신산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여성 등이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80회정도의 여성전문 창업강좌를 개최하고, 10월경에는 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과 실직자 등의 창업활동을 지원한다. 금년도에 장애인 창업자금융자 및 영업장소를 위하여 232억원을 지원하고,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의 지원자금으로 130억원을 대여한다. 또 금년도에 장기실업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사업장 무보증 또는 무담보임차 용으로 400억원을 그리고 국가유공자 생업을 위하여 343억원을 지원한다.

넷째로, 지방 중소유통업의 활력을 제고한다.

재래시장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한다. 금년도에 266억원을 들여 67개의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금년도 5월 현재 2개소의 시장경영지원센터를 5개소로 확대 지정한다. 또 4월 30일 현재 재래시장활성화 특별법을 개정하여 금년도 하반기중 재래시장 개선관련 시도별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여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반구조를 확충한다. 부산, 제주와 전주 3개시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31억원을 투입하여 권역별 공동도매물류센터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금년 하반기중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권역별 유통·물류 네트워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확대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금년도에 7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협회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중소기업인 경영교육과 연수사업을 적극 실시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지침서인 경영가이드북(management guidebook)을 제작하고 창업박람회 및 지방순회 로드쇼(roadshow)를 각 10회 개최한다.

다섯째로,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과 판로개척 및 경영정보를 적극 지원한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작년도의 41.5조원에서 금년도의 44.8조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그리고 수출기업의 대외신용거래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 수출보험기금을 금년도에 2,000억원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500억원을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추가로 확보하여 수출용 원부자재의 구입자금으로 지원하는데 금년도의 65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늘려서 지원한다.

금년도 5월 현재 2개소의 시장경영지원센터를 5개소로 확대해서 지정할 계획이며, 금년도 하반기 중 재래시장의 개선과 관련하여 4월 30일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을 개정하여 시도별로 분쟁조정기구의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 4. 결 언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중소기업은 그 나라 산업의 중추로서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 인간도 허리가 부실하면 몸의 균형을 잃고 아래위가 따로따로 놀아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 축구경기의 링커(linker)와 같이 전·후방 연결해 주는 것이다. 국가의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가 된다. 어느 나라든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이 없이는 그 나라의 산업이 진전될 수 없다. 다소 늦음 감이 있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은 영세 및 중소기업에게는 커다란 활력소이자 원동력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영세·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99%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번 정부의 지원계획이 구호성의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요청된다고 하겠다.

중소기업도 역시 정부의 시책에 보조를 맞춰, 쓸데 없이 불만이나 불평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성실한 태도로 정부시책에 동조하여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지금과 같은 어렵고 힘든 여건속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책이 나온 만큼 중소기업은 발맞춰야 한다. 다시 태어난다는 굳은 의지와 각오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하는 보람찬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